

# ‘릴레이 청문회’...한덕수·정호영·한동훈 ‘타깃’

### 아빠찬스·위장전입·편법증여 의혹...‘윤석열표 공정’ 흡집 국힘, 정호영 후보 곱지 않은 시선...1~2명 낙마 가능성도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수장들에 대한 릴레이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은 다음 주부터 청문 정국에 들어선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 진용을 갖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 동력과도 직결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휘말려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청문기상도는 ‘흐림’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역, 성별 등의 인위적 안배보다는 철저하게 후보자 개인의 실력, 전문성에 초점을 둔 인선을 했지만, 이번 청문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인사청문회가 난관에 부딪히는 모양새다.

한덕수,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한동훈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나와 청문 정국에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정치권에선 대다수 후보자들이 재산 문제나 자녀 입시·취업·병역 등 국민의 ‘역린’으로 여겨지는 의혹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흡집이 간 만큼 “1~2명 정도는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기조가 공정·상식

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불공정’ 논란이 주전선을 형성하면서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조국사태 당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부모 찬스’와 동일한 검증 잣대로 공세를 버리고 있는 분위기다.

공정 논란과 관련해선 한덕수 후보자의 대형 로펌 거액 고문료 논란, 한 후보 배우자의 미술품을 재벌가에서 구입한 사실 외에도 처가가 보유했던 청계천 일대 토지를 한 시행사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해 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논란이다. 한 후보자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하며 받은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퇴임 후에도 무상으로 이용해온 것과 주미대사 시절 대사 관저에서 서울대 동문회 모임을 가진 사실도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도 ‘의혹 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나오고 있다.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의 딸·아들이 응시했던 2017·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특혜 의혹이 ‘아빠 찬스’ 시비를 일으키며 청문회 쟁점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정 후보자 아들의 재검진에도 불구하고 2015년 당시 병역 4급 판정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청문회로 공방이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는 딸이 고교생·대학생 시절 로펌·국회의원실에서 한 ‘현장체

험’이 인턴활동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아빠 찬스’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강남 8학군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도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에서 질타가 예상된다.

김인철 교육부 후보자의 경우 한국폴리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 때 딸이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간 사실이 ‘아빠 찬스’를 의심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장교로 군 복무하던 시절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첫 학기까지 마친 사실도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소위 ‘엄마 찬스’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는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로 편법 증여 의혹,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는 모친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액보다 높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상속·증여세 절감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과거 행적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 기업 사외이사나 자문위원을 겸직한 후보자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관직에 오를 경우 이해충돌 의혹이 공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덕수(에스오일) 총리 후보자 뿐만 아니라 산자부 이창양(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티씨케이), 교육부 김인철(롯데캐미칼, 롯데GRS), 환경부 한화진(삼성전자), 행안부 이상민(AK홀딩스, ENF테크놀로지), 문체부 박보균(신세계인터내셔널), 농림부 정황근(농협경제지주) 장관후보자는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국방부 이종섭(국방과학연구소), 산자부 이창양(SK하이닉스, LG경영개발원 등) 후보자는 자문위원 경력이었다.

이밖에 한동훈(법무), 정호영(복지) 후보자

등은 각종 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9명 중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절반을 넘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인수위, 대선 캠프 출신 등이 내정된 점도 청문 정국에서 ‘코드 내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한동훈·정호영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고, 정의당은 한동훈·정호영·김인철·김현수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려놓고 까다로운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 가능하지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총리 인준 조건으로 일부 장관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철회나 사퇴를 요구할 개연성이 크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든 지키려 할 것이고,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거부할 경우 다시 인선부터 청문회까지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이 마냥 한덕수 총리 후보를 비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총리 인준과 장관 낙마 문제를 연계시켜서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어떤 형식으로든 일부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청문 정국에서 물밑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당선인으로서도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새 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민주당의 낙마 카드를 일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이슬기자



## 문 대통령, 기자단 초청 5년 국정 소회 밝힐 듯

###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 만남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퇴임을 보름여 남겨둔 시점에서 5년 국정운영의 소회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만남 행사를 갖는다. 오피스론 확산으로 건너뛰었던 올해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성격의 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의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밝힐지도 관심이다.

또 종교·시민사회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정경심 전 중앙대 교수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순석회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신·구 권력 갈등에 대한 견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입장 ▲북한의 핵개발 따른 남북 해보유 주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예상된다. JTBC는 유튜브에 공개한 사전 예고편에서 해당 주제들에 대한 문답이 오갔음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 문 대통령 재임 중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0월25일 내·외신 출입기자단 초청 녹지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을 통해 북한의 급강산 관광시설 철거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고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한 인사 공정성·검찰 개혁 과제 속도조절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당시 간담회는 2019년 5월9일 취임 2주년 계기 KBS 생방송 특별대담에 따른 출입기자단과의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국면과 맞물려 5개월 지연 끝에 이뤄졌다.

서선욱기자

## 安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안 받게 하는 것 ‘이해상충’”

### “좀 더 충분한 시간 가지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는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건 제 소신”이라면서도 “여 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권력기관들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에 검찰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보내지면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

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해상충을 언급하며 ‘많은 지식인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릴 틈을 쥐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간에 대한 부분”이라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